



권갑현 편집위원장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2>

《효행록(孝行錄)》



이 책은 국재공(菊齋公, 권보權溥, 1262~1346, 시조후 13세)과 그 아들 창화공(昌和公, 권준權準, 1281~1366, 시조후 14세)이 함께 엮고, 국재공의 제자이자 사위인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 1287~1367) 공이 찬(贊)을 짓고, 나중에 양촌 권근(權近, 1352~1409, 시조후 16세) 공이 주(註)를 붙인 것이다.

익재공이 지은 〈효행록서(孝行錄序)〉 국역문은 다음과 같다.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 권준(權準) 공이 일찍이 공인(工人)을 시켜 이십사효도(二十四孝圖)를 그리게 하였는데, 내가 그 그림에 찬(贊)을 썼으며 사람들이 자못 널리 전하였다. 이윽고 부원군이 그림과 찬을 국재(菊齋) 권보(權溥) 공께 바치니, 국재가 또 손수 서른여덟 가지 일을 뽑아서 나에게 그 찬을 부탁하였다.

이리하여 전후로 지은 찬이 모두 예순네 가지 일이었는데, 우구자(虞丘子)에다가 자로(子路)의 효행을 붙이고 왕연(王延)에다가 황향(黃香)의 일을 붙였으므로 장(章)으로는 62장이 된다. 그 사어(辭語)가 저속함을 면하지 못한 것은, 대개 전야(田野)의 백성들도 모두 쉽게 읽어 다 알기를 바라서였으나, 이를 본 문사(文士)들은 이를 가리켜 조수부(調水符)와 치냉부(蚩冷符) 같은 저속한 글이라고 하지 않는 자가 드물 것이다.

그러나 생각건대, 국재공은 85세이고 길창공(吉昌公)은 66세인데도, 아짐저녁으로 문후(問候)를 드리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여 봉양함으로써 국재공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으니, 이 또한 노래자(老萊子)가 나이 70에 색동옷을 입고 어린이에 놀이를 한 효성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내가 장차 대서특필(大書特筆)로 다시 권씨(權氏)의 효행(孝行)을 위하여 한 장(章)의 찬을 쓴 다음에야 그만두리라.”

양촌공은〈효행록후서(孝行錄後序)〉의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백종조(伯從祖) 창화공

(昌和公) 휘 준(準)은 벼슬이 개부(開府)에 이르렀고 나이는 육순이 지났지만, 우리 증조인 국재(菊齋) 문정공(文正公) 휘 보(溥)를 섬기어, 아짐저녁 부드러운 얼굴로 봉양해서 그 환심을 얻었고, 또 그림 그리는 사람을 데려다 예전 효자 24명을 그려 놓고, 또 익재(益齋)에게 청하여 찬(贊)을 지어 갖다 바쳤으니, 이는 문정공께서 그 그림을 구경하고 즐거운 마음이 생겨서, 그 늙어가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려는 것이었다.

문정공이 그림을 받아 가지고 좋아서 손수 38가지 사실을 뽑아 기록하여 덧붙여 놓고, 또 익재로 하여금 찬(贊)을 짓게 하였으니, 이것이 효행록이 생기게 된 이유이다.”

이 책에 수록된 두 번째 효행인

〈노래자가 아이 놀이를 하다(老萊兒戲)〉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행록(行錄)’이 나온다.

“노래자(老萊子)는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나이 70살이 되었을 때는 부모님이 각각 100살이었다. 오색의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부모의 곁에서 어린아이처럼 아양을 떨었다. 선반위에 있는 물그릇을 내리다가 발을 헛디디고는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부모님이 자신들이 늙었다고 근심할까 걱정해서였다.”

여기에 익재공은 다음과 같이

‘찬(贊)’을 지어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나이 많은 것을 근심하는데,

자식이 이미 늙었다고 하면 부모가 어찌 편안하리?

옛날 노래자는 그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생각했네.

부모가 모두 백 살이고 자기 또한 일흔이 되었도다.

알록달록 색동옷 입고 어린이에 처럼 울고 장난질했네.

흰 머리털 붉은 얼굴이 봄바람에 화기가 돌았도네.”

그 뒤에 양촌공은 이 ‘찬(贊)’을 자세하게 풀이하여 ‘주(註)’를 달았다. 고려말에 초판이 나왔으며 1428년(세종 10) 설순(僣循) 등이 개정하여 중간하였다.

이 책에 대해 관련 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효자·충신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등이 편찬되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미친 영향이 막대하다고 한다.

원문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효행록서(孝行錄序)〉와 〈효행록후서(孝行錄後序)〉의 번역문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역서는 2004년 경상대학교 윤호진 교수의 번역으로 경인문화사에서 나왔으며, 다시 그 뒤 2017년에 ‘지식유포만드는지식’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구계(癯溪)를 찾아서(1)

권재중(權在重, 38세, 시중공파 화천군중종)

나의 11대조 정헌공(正獻公, 1656~1724 호종7~경종4)의 휘는 상(尙) 자, 유(游) 자시며, 호를 ‘구계’라 했다. 구계는 정헌공께서 사시던 지명에서 유래한 자호自號다.

옛날 선비들은 으레 몇 가지 이름을 가졌다. 태어나자마자 지어주는 이름이 아명이다. 당시에는 유아사망률이 높던 시절이라, 홍역을 잘 견뎌내고 튼튼히 자라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되도록 천하면서 군센 이름을 지어 붙였다. 가령 ‘돌이’, ‘바우’, ‘돌쇠’ 같은 이름이다. 내가 어릴 적에 증조모이신 함창 김씨 할머니께서는 “네 큰애비의 아명은 ‘범’이고, 네 할애비는 ‘또범’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네 애비는 ‘천리구(千里駒)’라 했지.”라고 귀띔해 주셨다. 홍역을 치루고 난 뒤에 ‘이제는 저 애가 사람 구실을 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면 그제야 부모나 존장이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이를 ‘명(名)’이라 한다. 더 나이가 들어 성년의식인 관례를 치루면서 부모나 스승이나 존장이 지어주는 이름을 ‘자’라 한다. ‘자’는 주로 스승이나 친구가 불러주는 이름이다. 더 성장하면 호 또는 아호를 지어 붙였다. 호는 자기 자신이 짓기도 하고 집안 어른이나 존장이나 스승이나 친구가 지어주기도 했다. 그래서 호는 자신의 이상, 성정, 취향 등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의 서재, 정자, 별장, 거주지, 출생지 등에서 따오기도 했다. 호는 주로 자손, 친인척, 벼자, 친구가 불러주었다. 자신의 시문 서화 등 작품에 서명할 때에 즐겨 썼기 때문에 요즈음도 문인, 서화 작가 중에 아호를 쓰는 전통이 남아 있다.

그런데 ‘정헌공이 젊은 시절 사셨다는 구계가 어디인지?’, ‘구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셨는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 나 또한 젊은 시절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다. ‘역사는 유적과 유물을 낳고, 유적과 유물은 역사를 증언한다. 말이 있듯 선조의 유지와 유적을 찾아본다는 것은 곧 뿌리찾기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구계에 대해서 나는 다음 두 가지 단서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어렸을 때 보았던 ‘백운산장白雲山莊’이란 낙관(落款)이요, 또 다른 하나는 ‘화산세승花山世乘’이라는 우리 집 가승(家乘)이다.

먼저 ‘백운산장白雲山莊’이란 낙관 이야기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초등학교 시절 겨울방학 때 할아버지 댁 벽장에 감춰 둔 꽃감을 몰래 빼먹으려다가 발견한 것이 이 낙관이다. 나무나 물소 뿔로 된 작은 타원형이나 원형으로 된 작은 도장만 보다가 정사각형 곱돌에 새겨진 큼직한 ‘백운산장白雲山莊’ 낙관을 보고 나는 무척 놀랐고도 신기했다. 이 낙관은 그 뒤 6.25 때 화재로 불타버렸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 낙관이야말로 바로 구계에 있던 집의 택호가 아닌가 싶다.

다른 하나의 단서는 우리 집안 대대의 내력을 기록한 ‘화산세승花山世乘’이란 가승

이다. 화산세승에 의하면 정간공(靖簡公, 1684~1759, 숙종20~영조35)께서 갑진(1724 경종4)년에 ‘아버지 정헌공의 상을 당하시고, 이듬해인 을사(1725, 영조1)년에 구계에 있는 옛집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로써 정헌공께서 구계에 사셨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그런데 백운산은 우리나라 곳곳에 널려 있다. 어느 곳에 있는 백운산인지 알지 못한다. 지도를 보면 전남 광양에 있는 백운산(1,218m), 강원 원주시 충북 제천 경계에 있는 백운산(1,087m), 경기 포천과 강원 화천 접경에 있는 백운산(904m), 울산에 있는 백운산(892m), 강원 정선과 영월 경계에 있는 백운산(882m), 경기 의왕에 있는 백운산(564m), 충북 음성에 있는 백운산(345m) 등 이루 다 열거하기가 어렵다.

그 가운데 내가 처음 주목한 산은 음성에 있는 백운산이었다. 충북 음성과 경기도 안성에 걸쳐 있는 이 산 인근에 음성군 남왕읍 구계리가 있기 때문이다. 서둘러 관련 자료를 검색해 보니 음성군 금왕읍 구룡리九龍里와 사계리沙溪里를 통합할 때 만들어진 지명이라 구계리九溪里라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구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명이다. 뿐만 아니라 구계리와 백운산은 제법 거리가 멀어 굳이 ‘백운산장’이란 택호를 쓸 이유가 없어 보였다.

그러다가 2016년 제천시 한수면 한수재(황강사당)에서 거행되는 시제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 마침 음성에서 오신 친척이 세 분 있었다. 나는 갑자기 궁금증이 도져서 “음성 백운산(345m) 자락에 혹 구계란 지명이 있는지 들어 보셨어요?”하고 질문을 던졌다. 그랬더니 한 분이 “잘 모르겠는데 백운산이라면 음성보다는 제천의 백운산(1,087m)이 더 유명하네 그쪽을 알아보시지.”하고 알려주셨다. 순간 나는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고 후회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둘러 지도를 펼쳤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더니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와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경계에서 백운산(1,087m)을 어렵지 않게 찾았다. 내친 김에 제천 백운산 등산코스를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원주시 신림역에서 서쪽으로 402번 지방도로를 따라가다 제천시 백운면 덕동계곡입구에 ‘여우내:’라는 표시가 보인다. ‘:’는 자연부락을 표시하는 지도상의 기호가 아닌가. 내 머리에 반개처럼 직감이 스친다.

‘여우내!’ 그렇다. 바로 여기가 구계다. ‘여월구’자에 ‘시내 계溪’자다. ‘여우내’를 한자로 표기하면 영락없이 ‘구계’다. 내친김에 국어사전을 펼쳤다. 먼저 ‘여위다’를 찾았다. ‘몸의 살이 빠져 조금 파리하게 되다’라고 적혀 있다. 비슷한 말로는 ‘아위다. 비리비리하다. 수척하다. 패하다. 가칠하다. 마르다. 상하다. 빠지다’라는 라는 말이 줄줄이 열거되어 있다. 이어서 ‘아위다’를 찾았다. ‘아위다’는 ‘살이 빠져서 앙상한 상

태가 되다. 마르다. 가난하고 구차하게 되다’라고 되어 있다. ‘여위다’와 ‘아위다’는 결국 비슷한 말이다. 따라서 ‘여위 내’와 ‘아위 내’가 발음하기 쉬운 ‘여우내’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명이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바뀐 사례는 숫하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관교는 ‘널다리’를 한자로 표기한 이름이다. 원래 이름은 ‘널다리’였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어쩐 일인지 ‘너더리’라고 부르고 있다. 충남 금산군 금성면사무소가 있는 금곡리金谷里(쇠실)의 윗동네이름은 ‘원터’다. 원 터에서 진산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을 사람들은 ‘소란재’라고 부른다. 원래 원 터에는 ‘송원松院-솔원’이 있었다.

원院이란 옛날 조선시대의 출장관원들이 이용하던 숙박시설이다. 처음엔 솔원이 있는 고개라는 뜻에서 솔원재라 하였는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부르기 쉬운 ‘소란재’로 변해버린 것이다. 충북 옥천군 군서면소재지 동평리를 인근 사람들은 ‘서왜’라고 불렀다. 최근 나는 군서면의 옛 이름이 ‘서화면西化面’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서화가 ‘서해’, ‘서왜’로 바뀐 것이다.

그나저나 아무래도 정헌공이 은거하셨다는 구계를 찾으려면 틈을 내어 ‘여우내’를 직접 찾아가 보고, 또 촌로村老에게 물어가며 차분히 탐색할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다짐하고 후일을 기약했다. 2016.11.15



시경(詩經) 대아(大雅) 증민편(烝民篇)은 하늘이 여러 백성을 내시니(천생증민天生烝民) 물건이 있음에 법칙이 있는데(유물유칙有物有則) 백성이 떳떳함을 지녀(민자병이民之秉彜)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호시의덕好是懿德) 라고 말한다.

목여청풍(穆如淸風)은 증민편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구절로써 “화목은 맑고 신선한 바람과 같다”는 의미이다.

근당(勳堂) 권태은(權泰殷, 33세, 좌윤공파)

〈2021年 5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4. 29. ~ 5. 28.
총 납부자 22명/지사 1곳
총 1,080,000원

(이름순)			단위:원
* 권오삼	권병호(춘천)	권오봉(구미)	
30,000	30,000	30,000	30,000
* 권태남	권석창(서울중구)	권오수(경기고양)	
30,000	30,000		50,000
* 권태원	권수보(경주)	권중봉(거제)	
30,000	30,000		30,000
권광승(합천)	권순익(대구)	권태복(서울금천)	
30,000	30,000		30,000
권길상(강릉)	권영복(서울용산)	권혁길(김포)	
30,000	30,000		30,000
권대봉(인천)	권영진(성남)	권혁중(안양)	
30,000	30,000		30,000
권도현(창원 합성동)	권영채(예천)	지사지국 납부지역	
30,000	30,000		
권병우(경기양주)	권오곤(진주)	안동권씨 북야공파	
30,000	30,000		400,000

*표시한 납부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총회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2020년 정기총회 이후 미납된 임원회비는 꼭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안동권문의 발전과 100만 족친의 화합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임원 :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 대총회 사무처

- ▶ 전화번호 : 02-2695-2483~4
- ▶ FAX: 02-2695-2485

◆ 임원회비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33237-04-006941(예금주: 안동권씨 대총회)
- ▶농협: 301-0235-6546-41(예금주: 안동권씨 대총회)

안동권씨 대총회